

우리 나라 일부 택시운전사와 사무직 근로자의 건강위험도 조사

오 경 숙

서울 성북구 보건소

택시운전사의 건강은 바로 국민의 안정성과 연결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각종의 유해인자로부터 택시운전사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을 개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전사의 건강상태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택시운전사는 자기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건강상태가 좀 나쁘더라도 무리를 하여 근무하지 않을 수 없다. 차량의 안전성 확보, 노동조건의 개선, 안전교통, 배기가스에 의한 공기오염, 냉방장치에 의한 저온, 신경감각계의 긴장, 진동 및 구속자세, 불규칙한 식사, 교대근무 등에 따르는 작업환경과 관련하여 특별한 건강관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택시운전사와 사무직 근로자의 건강관심도, 건강상태, 건강위험도를 비교조사함으로써 택시운전이라는 환경에서 가져올 수 있는 건강의 위험요인을 밝혀 건강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서울지역의 개인택시운전사 150명과 사무직근로자 150명에 대하여 설문지조사방법으로 수행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택시운전사와 사무직근로자간의 건강관심도, 건강상태는 차이가 없었으나 건강위험도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건강위험도의 항목에서 택시운전사의 집단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인 항목은 '불안·초조·신경이 예민', '신경질적·화를 잘냄', '어깨·허리가 빠근함', '매운것·기름진 것·커피를 선호함' 등에 관한 것이었다. 한편,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건강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보건관리자는 택시운전사에 대한 보건교육을 강화하여 건강관심도를 높이고 건강위험도는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건강검진 등과 같은 방법으로 정확한 건강상태가 파악될 수 있도록 사내 정책 규범화를 지원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또한 운동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에 참여하도록 사전에 질병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